

# “돈버는 농어업, 살맛나는 농어촌 달성” 농림수산식품부 대통령 업무보고



지난 18일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생물산업진흥원 컨벤션센터에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업무보고가 있었다.

업무보고에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돈버는 농어업, 살맛나는 농어촌 달성’을 위해 올해 ▲농식품 유통혁신 ▲핵심인력 양성 ▲식품산업 육성 ▲규제완화 중점 추진 ▲농어업인 복지지원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농림수산식품부의 업무보고 주요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 농식품 유통혁신

◆시·군 단위 유통회사 설립= 시·군에 전문 경영체제를 갖춘 유통업체를 설립해 대형유통업체와 직거래 등을 통해 연간 1천억원 수준의 매출(지역생산물의 1/3 처리)을 올리도록 할 계

획이다.

◆품목별 국가 대표조직 육성= 품목별 국가 대표조직을 육성해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생산자 스스로가 해당 품목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

결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대규모 농어업회사 육성= 생산·가공·유통 및 연구시설 등을 결집해 농어업을 2·3차 산업으로 확장하는 모델로서 대규모 농어업회사를 육성하고, 이를 동북아 농식품 수출의 전진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 핵심인력 양성

◆30~40대 농업인력 확보= 농어촌 뉴타운을 조성해 일정수준 이상의 생산기반이 갖추어진 고령 농어업인의 도시 거주 30~40대 자녀들을 유치해 주거환경과 교육여건이 좋은 일정 지역에 모여 살도록 할 계획이다.

◆마케팅 CEO 100명 확보= 타 산업분야의 임원 출신을 선발해 축적된 마케팅·경영 노하우를 접목, 농업마케팅 혁신의 새바람을 확산할 계획이다.

## 식품산업 육성

◆식품제조업 활성화= 고추장·된장·간장·김치·천일염·젓갈 등 6대 전통·발효식품의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세계시장을 겨냥한 신상품 개발, 품질개선을 지원한다. 농어업인의 소규모 식품제조판매업의 시설기준도 완화한다.

◆외식산업 육성 및 한식 세계화= 식재료 중개 센터를 설치해 외식업체와 산지 생산자 조직간의 계약생산 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한식 300종의 조리법·명칭 표준화를 추진하고, 해외 진출 한식업체에 정보 및 금융지원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Global Food Festival 개최= 올 9월1~7일을 식품주간으로 선포, 식품산업의 본격적인 육성

을 선언하고 식품축제를 연다.

◆쌀 가공식품 시장 확대= 밀가격 상승에 대응해 쌀가공식품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매년의 무적으로 수입(MMA)되는 쌀을 쌀면(라면·국수)용으로 밀가루 가격 수준으로 공급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국산 쌀 가공제품은 기능성·고급 상품으로 차별화할 계획이다.

## 규제완화 추진

한계농지의 소유 및 거래제한을 철폐하고 한계농지 전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한다. 비농업인 상속농지 소유한도(3ha)도 폐지한다. 또한 농업보호구역 중 수질오염 우려가 미미한 지역 약 6만2천ha는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아울러 자연녹지·계획관리 지역의 농지·산지 전용허가 권한을 지자체에 모두 위임한다.

## 농어업인 복지지원 강화

◆직불제 신규 도입 등 농가소득 안전망 확충=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해 (가칭)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농촌환경·문화경관보전 직불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형 역모기 지원 도입 방안도 마련한다.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농어촌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재해공제 지원을 확대하고, 조손가정을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에 포함해 지원한다. 또 농어촌 지역 거주 학부모의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한다.

농촌여성신문

| 이종국 기자 · yiwang21@hanmail.net